

중국 문화비교 II

한국디자인진흥원 선행연구실 강승영 주임연구원

*이슈리포트 36호 '중국 문화비교 I'편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 중국 유명 디자이너(스튜디오) 및 기업

- (1) 전통과 현대의 융합을 무기로 활동하는 디자인 스튜디오
- (2) 서양과 중국 조화를 소재로 활동하는 디자이너

본 자료는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연구와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 디자인의 글로벌화 및 외연확대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해외진출 국가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교육·연구 목적으로 기사, 보고서, 도서, 타 기관 이슈리포트 등이 활용되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보도, 비평, 교육,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하며, 자료 인용 시 자료상의 원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중국 문화비교 II

중국 디자인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가격 경쟁력에만 치중했던 과거를 지나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모두 갖춘 지금, 디자인 경쟁력 제고에 승부를 걸었다. 즉,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차이나 메이드' 시대로 발돋움한 것이다. 중국은 이제 더 이상 디자인 변방국이 아니다. 어느새 디자인 선도국가로 자리매김 했고,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의 이목을 끌어내고 있다. 동서양 디자인의 오묘한 조화, 전통적 아름다움에 최신 트렌드를 더한 중국 특유의 멋은 전 세계인에게 신선한 충격을 던지며, '중국 디자인'의 영향력을 넓히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의 디자인 트렌드를 알아보려고 「융(融), Made in Hangzhou」 프로젝트로 중국 디자인 트렌드를 선도하는 항저우 대표 스튜디오 세계 시장을 주름잡는 중국 디자인 기업(스튜디오), 동서양의 조화를 소재로 활용하는 디자이너를 집중 조명해 보았다.

중국 문화비교 II

1. 중국 유명 디자이너(스튜디오) 및 기업

자료 출처 : 중국 디자이너 온다/ 저자 황윤정 / 페이웬화 / 미술문화 2018.01.10. / ISBN 9791185954318
사진 : 해당 디자이너 및 스튜디오 공식 홈페이지

(1) 전통과 현대의 융합을 무기로 활동하는 디자인 스튜디오

- ① 유행을 따르지 않아 더욱 아름다운 디자인, 가구에 유려함을 입히다
판지 | FNJI(梵几客厅)



출처 : www.fnji.com

자연을 오브제로 정교하고 섬세하게 표현하여, 가구를 통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FNJI. FNJI는 대량생산, 저품질, 화려함 등 중국 제품하면 자연스레 떠오르던 부정적 이미지를 내려놓게 만드는 곳이다. 좋은 재료, 심플하지만 우수한 디자인이 이곳의 철칙이자 고집으로 35명의 직원이 마케팅부터 CS, 배송까지 책임지고 있다.

소규모 인원에 의해 주문제작으로 이뤄지다 보니 한 달 생산량이 20개 안팎이지만,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이와 반대로 매우 높다. 특히 유행을 따르지 않고 전통과 현대의 미를 적절하게 조화시켜 ‘단순함’, ‘부드러움’, ‘심적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판지만의 특징이다.

중국 문화비교 II

② 멋스러움을 더한 회귀, 버려지고 소외된 곳에 젊은 에너지를 새기다
벤투스튜디오 | Bentu Studio(本土创造)



출처 : www.bentudesign.com

콘크리트, 건설 폐기물 등 일상 속에서 버려지고 외면되던 소재들을 이용해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리사이클링 디자인 전문 업체 벤투스튜디오. 벤투스튜디오의 입사자격은 25세 이하 그리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학벌이 아닌 ‘반짝이는 아이디어’, ‘독특한 생각을 실현하는 사람’이 더 환영받는다. 그래서인지 2012년에 창립한 이곳은 ‘젊은 에너지’로 표현된다. 특히 이곳은 불필요한 디자인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소재가 자체가 가진 특유의 아름다움을 심플하게 살려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중국 문화비교 II

③ 전통 디자인을 향한 중국, 독일, 세르비아의 항저우 콜라보레이션 핀우 | PINWU(品物流形)



출처 : www.pinwu.net

핀우는 중국의 장레이(张雷), 독일의 크리스토프 존(Christoph John), 세르비아의 요파나 보크나도피크(Jovana Bogdanovic), 국적도 전공도 다른 세 디자이너가 중국 항저우(杭州)를 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디자이너 그룹이자 가구 스튜디오이다.

핀우의 특징은 항저우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재를 사용한다는 점과 중국 전통 수공예 기술을 토대로 현대적 디자인을 구사한다는 점이다. 특히 대나무를 그물망 형태로 직물 작업한 의자와 같은 죽세공품이 유명하다. 최근에 한국의 코오롱FnC(쿠론)와 협업을 진행했으며, 에르메스, 푸조, 마틴 마르지엘라 등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을 시도한 바 있다.

중국 문화비교 II

- ④ 흙으로 빚어내는 섬세함, 일상을 향한 자연의 속삭임
얼위 | Atelier Murmur(耳语工作室)



출처 : facebook.com/Ateliermurmur

2011년, 파리에서 만난 왕궈(王卓), 장신히(江昕荷), 쑤진진(孙瑾瑾) 세 명의 중국 디자이너는 ‘자연을 담은 도자기’를 빚기 위해 항저우에 도자기 스튜디오 얼위를 오픈했다. 중국어로 귓속말을 뜻하는 얼위는 일상 속에서 자연을 향해 속삭인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곳의 대표 작품은 스웨터의 질감을 표현한 도자기, 작품에 붙인 나뭇잎을 투명하게 만들어 자연스럽게 빛이 투과할 수 있도록 만든 도자기 등이다. 자연소재부터 종이, 유리, 시멘트, 천 등 다양한 재료를 도자기와 결합하여 만든 상품을 제작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내에서도 이목을 끌며 주요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중국 문화비교 II

- ⑤ 정교함과 섬세함을 엮은 대나무 공예, 죽화(竹花)를 피우다
소젠 | Sozen(素生)



출처 : www.sozen.cn

대나무와 실크 소재를 이용해 전통 수공예를 현대적 디자인으로 재해석한 소젠. 소젠은 디자이너 장준지에(章俊杰)가 정교하고 섬세하지만 생산과정이 느리고 원가가 높았던 전통공예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대중화한 대나무공예 브랜드이다.

대나무를 식물처럼 꼬아 내구성을 높였고, 도자기와 같은 대나무와 어울릴 수 있는 재료를 결합하여 조명, 의자, 화병 등 다양한 제품을 구현하고 있다.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iF 공모전에서 세 차례나 수상하는 등 중국 죽공예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중국 문화비교 II

⑥ 건축물을 화폭으로, 화폭을 건축물로, 산수예술화풍을 건축하다
왕슈 | Wang Shu(王澐)



출처 :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2035745&memberNo=43057900&searchKeyword=%EC%A4%91%EA%B5%AD&searchRank=287>

닝보역사박물관(宁波博物馆)으로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중국 최고의 건축디자이너 왕슈(王澐). 왕슈는 프리츠커상 수상 당시 중국 본토 출신이라는 점과 역대 건축가 프리츠커상 수상자 중 최연소라는 점에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현재 그는 항저우에 위치한 중국미술학원(中国美术学院) 건축학원장이며,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도시화 과정 속에서 숨을 고르고, 전통과 지역문화를 새로운 도시디자인으로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그가 재직 중인 중국미술학원의 새로운 캠퍼스 건립 당시 왕희맹(王希孟)의 <천리강산도(千里江山圖)>를 모티브로 산수예술화풍을 이을 수 있는 건축디자인을 추진해 중국 건축과 산수화의 조화를 이뤘다는 찬사를 받은 바 있다.

중국 문화비교 II

- ⑦ 주변 환경에 스민 디자인, 뚜렷하지 않아 더욱 빛나는 건축가
추이카이 | Cui Kai(崔愷)



출처 :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2036821&memberNo=43057900>

중국건축협회 부회장인 추이카이는 ‘베이징 올림픽’으로 대변되는 건축가이다. 베이징 올림픽 때 전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됐던 ‘베이징 올림픽 스타디움(鸟巢, Bird’s Nest)’의 공동 설계자이자 베이징 올림픽 공원, 다목적타워 등 베이징 올림픽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추이카이가 설계한 건축물의 특징은 자신만의 뚜렷한 색, 건축가 특유의 주장을 디자인에 녹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추이카이는 고유의 스타일을 고집하지 않고 지역특성을 살려 건축 색을 맞추는 걸로 유명하다. 때문에 그의 건축물은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토대로 디자인된다.

중국 문화비교 II

⑧ 원형과 곡선의 조화, 산수도시 속의 건축을 꿈꾸다 MAD Architecture



출처 : www.i-mad.com

중국 건축계를 대표하는 마옌송(马岩松). 건축 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시도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국에서 마옌송은 단연 돋보이는 건축가이다. 제2의 자하 하디드로 불리는 그가 2004년 설립한 건축사무소가 바로 MAD Architecture다.

그는 건축을 기계로 보는 기존 모더니즘 건축에 반대하며, 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유기적 생명체이자 지역과 함께 어우러지는 유기적 조형이 건축물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동양의 특유의 자연정신에 현대적 디자인을 곁들여 새로운 형태의 건축물을 시도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의 대표작은 캐나다 온타리오 주 미시소거에 위치한 ‘앱솔루트 타워(Absolute Towers)’로 초고층빌딩 공인인증기관 세계초고층학회(CTBUH)가 선정한 세계 최우수 신축 고층빌딩에 선정된 바 있다.

중국 문화비교 II

⑨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소설 같은 건축물
지아쿤 | Jiakun Architects(家琨建筑设计事务所)



출처: www.jiakun.com

중국 쓰촨성(四川省)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중국 3대 건축가 중 한 명인 리우지아쿤(刘家琨). 그가 이끄는 Jiakun Architects는 건축, 도시, 조경, 인테리어, 설치미술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리우지아쿤 건축물의 가장 큰 특징은 ‘치유’와 ‘재생’이다. 2008년 쓰촨 대지진 당시 파괴된 도시를 보며 건축가의 역할에 대해 고민 후 폐기물로 재생벽돌을 만들어 도시를 재건하는데 사용했다. 때문에 육안으로 보면 일반 벽돌과 다르지 않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재생하겠다는 뜻깊은 의미가 반영되어있다.

중국 문화비교 II

⑩ 문화장소 예술성의 건축가, 주페이 | Studio Pei-Zhu(朱镛建筑设计事务所)



출처 : www.studiozhupei.com

허핑턴 포스트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5인의 건축가’ 중 유일한 아시아인인 주페이(朱镛). 주페이는 중국인 최초로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건축상 ‘미스 반데로에 건축상’의 심사위원을 맡기도 한 중국의 건축거장이다. 그의 건축 특징은 ‘상이함’이다. 실제 그는 상황, 장소, 재료와 크기 등 건축물 마다 확연하게 다른 스타일의 디자인을 고수한다.

특히 그는 건축에서 ‘문화적 장소성’을 중요시 여겨 지역문화, 장소를 둘러싼 자연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주는 예술성을 표현하고 있다.

출처 : 중국 디자인이 온다/ 저자 황윤정 / 페이지웬화 / 미술문화 2018.01.10. / ISBN 97911859543181

사진 : 해당 디자이너 및 스튜디오 공식 홈페이지

중국 문화비교 II

(2) 서양과 중국 조화를 소재로 활동하는 디자이너

① 중국 넘버원 패키지 디자이너, 판후(潘虎)



출처 : tigerpan.com
facebook.com/tiger.pan.756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패키지 디자이너를 꼽으라면 단연 판후(潘虎)가 손꼽힌다. 2016년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5개 제품이 노미네이트되었고, 그 중 하나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에 선정되었다. 특히 그의 주 종목인 담배 케이스 디자인은 중국 담배업계 3사의 패키지 외주를 독차지 할 정도이며, 새로운 패키지가 나올 때 마다 중국 내에서 엄청난 이슈를 불러일으킨다.

판후의 특징은 각 브랜드 이미지를 다양한 조형 언어로 표현한다는 점이다. 디테일한 일러스트로 스토리를 표현하거나 질감을 통해 이미지를 형상화한다.

중국 문화비교 II

② 와인을 위한 최적의 패키지디자인, 우관푸(武宽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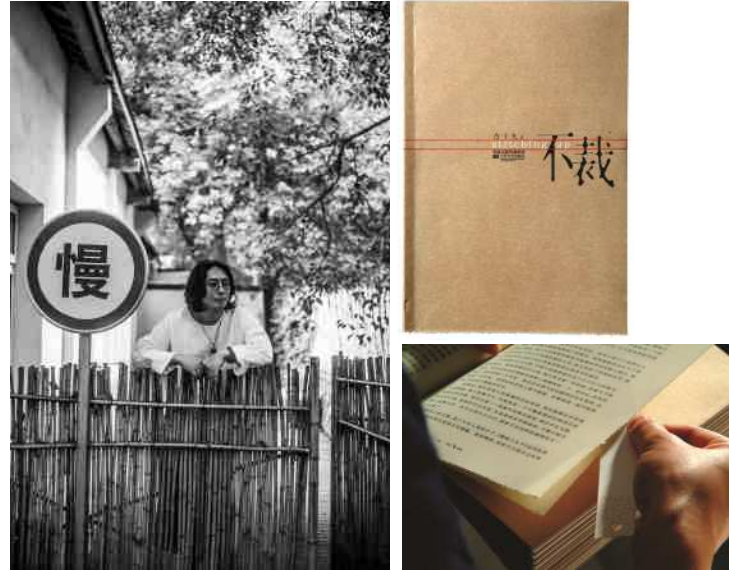
출처 : www.zhuoshang.cn

패키지디자인 분야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펜타워즈 디자인 어워드에서 금상, 은상을 11번이나 휩쓴 주오상 디자인(卓上设计). 주오상 디자인은 브랜드 디자이너 우관푸(武宽夫)가 설립한 디자인 전문기업이다. 와인병하면 자연스레 떠오르던 기존 와인병의 틀을 과감하게 깨버리고, 전통적인 모양을 탈피한 새로운 디자인 제품을 만든 걸로 유명하다.

대표 작품은 2010년 펜타워즈 디자인 어워드에서 금상을 수상한 와인병. 표면이 운석처럼 기하학적으로 절삭되어 빛의 굴절에 따라 느낌이 달라져 신비로움을 뽐낸다.

중국 문화비교 II

③ 느리지만 반듯하게 짓는 책의 옷, 주잉춘(朱瀛椿)



출처 : <https://brunch.co.kr/@bookfit/3242>

주잉춘은 중국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던 독특한 북 디자인 세계를 확립한 디자이너이다. 전자책이 성행하는 시대에서 종이책의 중요성을 알리며, 종이 책이 가진 의미와 생명감을 알리기 위해 스튜디오를 설립하여 책으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그가 설립한 북 디자인 스튜디오는 ‘책의 옷을 짓는 공방’이라는 뜻의 슈이팡공쭈오(书衣坊工作).

곤충과 함께 논밭을 거닐던 그는 커서도 수년간 벌레에 관한 연구를 강행했고, 결국 《벌레책(虫子书)》을 출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책에는 벌레에 관한 내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 지렁이, 무당벌레, 달팽이, 매미 등 벌레들의 흔적을 한 폭의 서예, 산수화처럼 표현해 놓았을 뿐이다. 그럼에도 벌레들이 지나간 흔적을 생명처럼, 신비롭게 표현하였다는 의미에서 높이 평가 받고 있다.

중국 문화비교 II

④ 상업과 예술의 경계, 한자잉(韩家英)



출처 : www.hanjiaying.com

중국에서 칭다오(靑島)와 더불어 국민맥주로 불리며 판매량 1위를 자랑하는 맥주 <쉐화(靑花)>의 디자이너가 바로 한자잉이다. 상업성과 예술성을 절묘하게 넘나들며 브랜딩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오른 한자잉은 중국내에서 '그래픽디자인의 시인'으로 불린다.

여행의 즐겁고 경쾌한 매력을 아이덴티티로 표현한 산둥성(山東省) 관광홍보센터 로고, 개인적 작업을 통해 예술적 면모를 드러냈던 순수문학 잡지 <티엔야(天涯)>의 표지디자인, 점·선·면을 이용하여 한자 서체의 미학을 표현한 타이포그래피 포스터 등 문자 자체만으로도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걸 직접 증명하며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중국 문화비교 II

⑤ 중국 타이포그래피계의 별, 비쉐핑(毕学峰)



출처 : www.bixuefeng.org

브루노구제디자인, 프랑스포스터전시회, 바르샤바국제포스터 등 국제 디자인 어워드를 휩쓴 중국 타이포그래피계의 별, 비쉐핑. 그는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선진디자인을 접한 뒤 상업적 디자인이 전부가 아니며 예술성이 뛰어난 디자인 역시 그래픽디자인 범주 안에 들 수 있음을 깨달은 뒤 작품 세계를 확장해 나갔다.

그 중 프랑스식 디자인에 영향을 받은 <모교(母校)>는 자신이 졸업한 중국미술학원 개교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한 포스터가 유명하다. 현재 그는 중국에서 한자부터 먹까지 중국 특유의 요소들을 적극 활용하는 디자이너로 주목받고 있다.

출처 : 중국 디자인이 온다/ 저자 황윤정 /페이웬화 / 미술문화 2018.01.10. / ISBN 9791185954318
사진 : 해당 디자이너 및 스튜디오 공식 홈페이지

2019년 10월 제 37 호

디자인 이슈리포트

발행인 윤주현
발행처 한국디자인진흥원
기획 및 주관 디자인혁신실 윤성원, 이주아, 임은지
발행일 2019년 10월

주소 1349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한국디자인진흥원
TEL 031 - 780 - 2022
FAX 031 - 780 - 2040
웹사이트 www.designdb.com

< 디자인 이슈리포트 **d.issue** >

본지에 실린 이미지는 비영리 목적으로 쓰여졌으며 출처는 이미지 하단 혹은 참고문헌에 명시하였습니다.

본지에 실린 콘텐츠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 포털 사이트 (<http://www.designdb.com>)를 통해서도 제공되며,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위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KIDP All rights reserved